

이재명 “권력 갖고 장난하면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민주당 최고위... “국가 권력 남용해 특정한 죽이겠다고 공격” 직격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편파 수사 언급... 오늘 영장 관련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22일 여야의 공방 수위가 민심의 양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고 직격했고, 여당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막말 끝판왕이자 범죄혐의자’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겁사겠습니까”라며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이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검찰과 윤 대

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아라’라고 하는 것, 이게 깡패의 인식”이라며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특정한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것이 국가 경계에 맞는 일이나”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다고 한다”며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단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즘 숫자가 유행이라는 데 133, 이것은 사건번호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번호 133’은 지난 2012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 거래 조사자료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영장을 보면 제가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짜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찼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겠지만 저는 주민들이나 그들이 원하던 바와 완전히 반대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대장동 개발) 환자가 아니라 강제수용해서 모든 권리를 박탈했고, 민간사업자 지정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잃었다”며 “제가 공모해서 도움을 줬

면 몇 년 치 대화가 녹음된 정영학 녹취록에 그런 내용이 한 글자라도 들어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깡패’ 발언에 대해 국민의 힘은 “막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정화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그럼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사유화 해 방탄막이로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혐의자이지

대표냐”고 공격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고문 간담회에서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앞으로 여러 번 체포동의안이 오겠지만,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부결로) 가고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임하라”며 쓴소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권 고문은 이어 “제가 이 대표에게 부탁할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역사에 길이길이 이어 나갈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은 잊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술선수법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체포동의안, 부결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이해찬 상임고문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김원기·이해찬 상임고문. /연합뉴스

민주 원내대표 선거, 벌써부터 ‘물밑 경쟁’

5월 → 4월 개최 가능성... 박광온·전해철, 의원들과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사령탑을 노리는 후보들의 물밑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는 5월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가 4월로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당헌에 원내대표는 매년 5월 둘째 주 선출하게 돼 있다. 지난해 3월 대선 패배로 인한 지도부 총사퇴 후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도 오는 5월까지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4월 국회의원 원내대표 선거에 맞춰 조기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하마평도 속속 나오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4선의 안규백 의원, 3선의 박광온·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 재선의 김두명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박광온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를 확정하고, 가장 활발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의원 역시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친문(친문제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등을 교두보 삼아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친문계로 분류되는 두 사람은 지난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주’ 워크숍을 찾기도 했다.

윤관석·이원욱·홍익표 의원도 주변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뚜렷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는 없는 상태다. 당내 분위기를 우려하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굳이 친명계 후보를 내 대립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와 각을 세우기보다 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적임자임을 내세우는 전략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이 분열하면 필패”라며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윤관석·홍익표 의원도 이 같은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자신이 ‘범친명계’로 친명계와 비명계 등 당내 모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후보라는 것이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

박희을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박희을(민주·남구3) 의원은 22일 ‘광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센터 직원들의 생활임금 포함해 이들의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오영순(광주 남구의원), 박정진(논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김정연(장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장), 서대필(광주시청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장)이 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자로 나선 노 전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을 생활임금제 대상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활임금

부족분 보전, 전 직원 호봉 재산정, 처우개선 수단 지급 여부 등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다양한 방안을 통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보전을 통한 일시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라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맞고 안정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돼 어린이 대상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지도 현장방문, 조리종사자 및 어린이(부모) 영양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활용 방안 모색

주중섭 전남도의원

주중섭(더민주·여수 6) 전남도 의원은 최근 여수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단과 만남을 갖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관련,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개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개인이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본격 시행되면서 전남도를 비롯, 전국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을 차별화

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주 의원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공급 업체 141개 중 28개소(19.8%)가 사회적경제기업 만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공공체의 역할과 참여도 중요하다”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및 판매 촉진 관련 조례 개정을 비롯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사회적기업 357개, 마을기업 302개, 협동조합 1413개, 자활기업 75개 등 총 2147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축원룸(상가) 매매	상가매매(상무지구)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p>충남 당진시 대산항, 화력발전소 5분 임대걱정없음</p> <p>▶ 월수익 → 750만 (년9,000만)</p> <p>시세 19억 급매 14억5천 (용7억)</p> <p>010-6670-9800</p>	<p>▶ 중심 상업지구 (유형적합)</p> <p>▶ 유흥가능 (전용 100평)</p> <p>▶ 시세 - 10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보3천, 월수익 380만)</p> <p>010-2614-9801</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북구 용봉동 (상가빌딩)</td> <td>▶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td> </tr> <tr> <td>북구 신안동 (상가빌딩)</td> <td>▶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td> </tr> <tr> <td>남구 사동 (토지)228평</td> <td>▶ 감평가 20억 → 최저가 20억</td> </tr> <tr> <td>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td> <td>▶ 감평가 16억 → 최저가 4억8천</td> </tr> <tr> <td>나주 봉화면 (과수원)</td> <td>▶ 감평가 5억 → 최저가 3억5천</td> </tr> <tr> <td>장성 동화면 (과수원)</td> <td>▶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td> </tr> <tr> <td>장성 북이면 (잡종지)</td> <td>▶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td> </tr> <tr> <td>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td> <td>▶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td> </tr> </table> <p>010-2614-9801</p>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평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평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평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북구 용봉동 (상가빌딩)	▶ 감평가 8억9천 → 최저가 6억2천																	
북구 신안동 (상가빌딩)	▶ 감평가 50억 → 최저가 35억																	
남구 사동 (토지)228평	▶ 감평가 20억 → 최저가 20억																	
구례군 산동면 (숙박시설)	▶ 감평가 16억 → 최저가 4억8천																	
나주 봉화면 (과수원)	▶ 감평가 5억 → 최저가 3억5천																	
장성 동화면 (과수원)	▶ 감평가 8억2천 → 최저가 4억6천																	
장성 북이면 (잡종지)	▶ 감평가 4억 → 최저가 4억																	
나주 빛가람동 (식자재마트)	▶ 감평가 54억 → 최저가 30억																	